'세트장 호객행위' 유감

〈실미도〉 영화세트장 철거 시비를 보는 눈

전 진 삼 · 건축비평가 | 간향 미디어랩 GML 소장

지난 호 줄거리 부연 : 건축의 2월

대학교수 K씨는 지금 건축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담론 생산의 구조 실종'을 꼬집어 말한다. 10여 종의 건축 잡지도 상업주의에 휘말려 오래 전에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진단한다. 지난 달 필자는 베르나르 츄미 현상을 일갈하며 외국 건축가의 방한 강연에서 이미지만 난무하는 강단에 쏟아지는 이상 열기에 대하여 기이한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었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청년 건축인들이 단순한 지적 호기심과 집단적 유행심에 이끌려 마치 인기 연예스타 뒤꽁무니를 쫓아다니듯 휴지말이 같은 기형적 세대증후군을 배경에 깔고 있다는 진단은 유보한 바 있다. 그 후로도 아키그램 · MVRDV · FOA · 자하 하디드 · 도미니끄 페로 등 굵직굵직한 건축가들이 방한하였으며 그들의 강연은 변함없이 우리 청년 건축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대학교수 K씨는 물경 우리 건축사회의 답답한 세태를 비판적으로 투시하다보니 서로가 치열하게 생각을 나누는 분위기가 소원해져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었고, 그러다 보니 건축사회 전반적으로 알맹이가 빠진 허명에 매달려 있는 형국의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다. 보다 근원적으로는 건축생산시스템의 문제, 건축 교육제도의 문제, 건축노동과 보수의 문제 등등 함께 생각을 나누고 다질 사안들이 산적해 있지만, 아무래도 그동안의 논의의 구조가 적절한 결론, 혹은 방향 제시에 미흡했다는 암묵적 동의가 내재한 것이 이유가 되어 반향은 생각 외로 크지 않았다. 우리의 청년 건축인들 또한 원론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해내는 사유의 구조가 불필요하다고 거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작은 장기적으로 건축의 비전이 불투명하다는 데서 오는 불안감이 크기 때문에 스스로가 위기의식을 덮을 수 있는 환경을 찾아 떠도는 유목민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 결과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여전히 방황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 건축인들이 적지 않다. 대학은 졸업생들을 거두기도 수월치 않고, 이미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은 자기 문제의 핵심을 비켜가려고 발버둥치는 계절이다. 어떠한 결론에 도달하든지 청년 건축인의 다수는 희망을 쌓기보다는 낙망을 쌓는 경우의 수가 더욱 크다. 이 달에는 그 같은 건축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하며 한 가지 주제에 관심을 피력하고자 한다.

인천, 실미도 영화세트장 철거 논란

'강원도 정동진 〈모래시계〉, 부천 중동 〈야인시대〉, 문경 〈태조 왕건〉, 제주도 섭지코지의 〈올인〉, 충주 〈대장금〉에 이어 인천 무의도 〈천국의 계단〉'. 이 모두가 대박을 터뜨린 드라마 세트장의 목록이다. 일부는 세트장 전체가 단지화되어 있기도 하며, 일부는 가설 건축물 한 동이 덩그라니 놓여 있는 경우이나 대부분 그것들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고 있다고 전한다.

그런데 최근 영화 〈실미도〉의 세트장이 자치구 관할 구청의 불법건축물 판정을 받고, 영화제작자가 고발되는 사태가 벌어진 바 있으며, 이후 즉각 철거된 일련의 사건이 있었다. 그로 인해 지역사회 언론은 철거 후 1개월이 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캐묻고 있다.

이는 국내 제 1호 경제자유구역을 송도 · 영종 · 청라지구에 유치하여 한층 자긍심이 상승되고 있던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기에 지역민들의 다수는 넋나간 문화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후 내막을 모르는 독자들을 위하여 사태의 앞뒤를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실미도〉 세트장은 영화제작사에 의해 생존자들의 충분한 고증과 현지 확인작업 등을 거쳐 섬 서쪽 1만 2천여 평의 해변에 순제작비 20여 억원을 들여 7개 동의 가건물을 제작하였다. 그런데 해당 자치구인 인천시 중구청은 해당 토지가 사유지 임의 계약과 도시계획 및 관광개발계획으로 10여 년 이상 묶여 쉽사리 각종 인허가를 해줄 수 없는 여건임에도 원상복구 조건을 달아 긍정적으로 제작지원을 했지만, 저간에 영화제작사가 허가내용과 다르게 형질변경 및 건축행위 등을 했고,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위법 행위에 대한 고발조치 및 철거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 후 쏟아지는 지역 내 여론의 빗발치는 항의에 대하여 구청장은 〈실미도〉 세트장이 관광명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법적일 수 있다면 모든 지역 내에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노점상 시설이나 주인있는 토지에 무단으로 방갈로나 영화촬영세트를 설치하는 불법 현안 사항 등을 단속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를 달며 발뺌을 했다.

이에 인천일보는 중구청이 보여준, 부가가치가 엄청난 영화산업에 주목하지 못하는 근시안적 문화행정마인드를 강력하게 경고하며 관광객을 쫓는 '꽉 막힌 행정'에서 벗어나야 할 것을 주문한 바 있으며, 구청장 발언의 부당함을 적시하고 일부에선 중구 내 리더들의 정치적 갈등의 피해대상으로 〈실미도〉 세트장이 졸지에 봉변을 당한 것이라고도 보도했다. 그리하여 충무로 영화인들의 말을 빌어 인천이 전국에서 가장 영화찍기 어려운 도시라고 몰아 세우기도 했다. 심지어는 세트장이 철거된 실미도를 원상태로의 복귀가 아니라 '폐허로 변해버렸다'는 식의 표현도 서슴지 않았는데, 그 배경에는 〈실미도〉 세트장 철거가 안겨준 아쉬움의 크기가 숨어 있음이다. 한창 영화제작 중이던 지난 해 7월 안상수 인천시장이 촬영 현장을 방문하여 시와 중구 관계자들에게 "세트장을 관광자원으로 보존하자"는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 확인을 통해서도 상급 기관장의 말이 통하지 않는 기초자치단체의 이해되지 않는 경직된 문화행정에 대해 질타를 가하기도 하였다.

게다가 1월 20일 현재 영화 〈실미도〉가 관객 500만을 훌쩍 뛰어넘으며 예상 밖의 선전을 하고 있자 〈실미도〉의 여운을 느끼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촬영현지를 돌아보는 요구도 크게 늘었고, 열이면 열 철거된 현장을 바라보며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하는 지역언론은 은연중에 이 사안의 군중심리전까지도 동원하고 있던 셈이다.

그러한 과정에서 특히 인천의 지식인들 저마다의 입에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되었다. 인천의 한 목회자는 실미도를 관광상품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 점을 아쉬워하며 그곳에 군부대에 입소하여 받는 담력훈련장, 특수훈련 코스를 만들어 상품화하면 영화 속의 주인공을 체험하는 히트 상품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한 술 더 뜨기도 했다.

인천이 그 태생 이력이나 도시의 규모에 비해 서울의 주변 도시로 전락한 사실에 분개하는 문화인들 사이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읽는 것은 어렵지 않다.

세트장 상위 시대의 딜레마

돈을 긁어모을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서의 드라마 세트장에 대한 인식의 확대는 할리우드 디즈니 신화의 한국판 성공기와 같다. 자원이 부족한 자치단체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상이다. 그러다보니 공사의 규모도 커진 지 오래고, 상상을 초월하는 제작비가 세트장 건설에 들어간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철저한 전문가의 고증을 앞세우지만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을 위해서 세워지는 가설 건축물들의 존재의미가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현실은 어지간한 건축물들보다 부가가치가 월등히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임시건물이어야 할 것이 지속가능한 건물로 위상전이를 감행한다. 이것은 딜레마다.

남아 있는 역사 속의 건물들은 오늘도 멸실 위기에 봉착해 있는 것이 여러 건이고, 우리 대다수의 서민들이 살아가는 주거문화는 치졸하기 그지없는데 지자체의 도시건축 비전은 삶이 보이지 않는 껍데기를 옹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사람의 건축은 사라지고 온통 인형의 집이다. 한 마디로 모조품의 건축행위를 도시문화의 일원으로 수용하려드는 지자체들의 입장에서 보면 관광산업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인해 군침을 흘릴 만하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타의 도시도 매양 마찬가지다.

되돌아보면 영화 〈쉬리〉의 효과는 우리 영화의 파이를 키운 신호탄으로 기억되고 있다. 이후 점차적으로 국내 영화제작비의 천문학적 숫자가 일반화된 것은 물론이려니와 그에 상응하는 영화산업의 관광자원화도 가속화되었다. 전국적으로 도시며 시골의 공간 구석구석에 감독들의 시선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장소가 섭외되었으며 급기야 대부분의 촬영장소가 익명성의 장소에서 일탈하여 장소적 기억을 간직하는 단계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실미도〉의 경우, 실재하는 장소성이 특히 강조되는 영화였으므로 감독이 거액을 들여 세트장을 짓고 영화의 리얼리티를 최대한 살리고자 했던 의지가 지역 문화인들의 관점에서 보자면 관광진흥의 호재로 삼을만한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영화 촬영지에 대한 세인의 관심이 관광자원화되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무시한 채 철거명령을 내린 〈실미도〉의 경우는 요즘 여타의 지자체들이 보여주는 무조건적인 애정 표현과는 너무나 다른 선택이었기에 당혹스러운 점은 있지만, 차제에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환기시켜주는 촉매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적으론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영화 혹은 드라마 촬영을 위한 세트장의 가설이 단지 관광자원이라는 가능성을 빌미로 건축의 가치를 판단할 겨를 없이 마치 현대판 유적처럼 떠받들어지고, 초법적 위상을 점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부패의 척도를 가늠할 기준선을 잃고 방황하듯이 도시를 홍보하고, 도시의 관광명소로서 수입을 올린다는 명목만으로 눈을 감아주어야 하는 병패를 키우는 셈인 것이다.

물론 〈실미도〉 세트장의 경우 중구청의 폐쇄명령과 고발조치를 전후해서 지역민들과의 열린 대화를 기조로 충분히 서로의 입장을 듣고 들어주는 절차를 밟았다면 결론의 성격과 무관하게 철거 후 폭풍과 달리 또 다른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을 것이다. 인천에서 다수의 지식인들이 분개하는 것도 사실은 거기에 기인한다. 나 또한 그 점에 대하여는 같은 생각이다.

그렇더라도 나는 〈실미도〉 세트장과 같은 류의 가설건축물들이 관광명소로 부각되며, 그것을 보존하는 세태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것이야말로 관광수익이라는 알량한 기준과 도시홍보라는 얄팍한 상술이 조합해놓은 결과라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땅덩어리가 크지 않은 나라에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다보니 자치

북파부대 훈련장 세트

실미도 세트장

단체별로 특성 없이 중복 투자되는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드라마 세트장과 같은 가설건축이 유치되고 여기저기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노라면 사실이지 분통이 터져 오른다. 문화의 깊이가 다져지는 것이 아니라 늘상 가볍고, 붕 떠 있는 문화의 허상을 보고 있는 듯해서이다.

건축 가치의 공멸

영화 혹은 드라마 세트장의 관광명소, 관광자원화를 주창하는 이들에게도 분명한 자기 논리가 있겠지만 나 또한 영화 속의 공간, 소설 속의 공간읽기에 대하여 공감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것은 건축의 발견이고, 공간을 읽어내는 지혜의 나눔이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라면 있어온 장소를 섭외하여 그곳에서 몇 개의 예기치 못했던 장면을 생산해낸 결과를 보는 느낌은 늘상 새롭다. 타장르 작가가 공간에 쏟는 상상력을 훔쳐보는 재미랄까? 물론 거기에도 감독들이 요구하는 얼마간의 공간변형이 있을 것이다. 그것 또한 재미다.

건축의 가치를 다른 각도에서 발견하려는 태도에서 기인하는 것이기에 흥미롭다. 그런데 보다 중요한 것은 현존의 가치를 지닌 건축대상은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또 다시 바로 이전까지의 삶의 내용과 형식을 담아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단지 건축물만의 문제가 아니다. 거리의 문제일 수도 있다. 관광객들의 시선을 붙들어 맬 수 있는 방법이 고작 영화인들의 화면 안에 제한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상상력 빈곤의 대상으로 전락한 결과물이 되겠는가. 관광객들이 그 장소의 기억으로부터 영화 속의 공간을 다시 발견하는 기쁨을 주는 것도 상품이 될 수 있다. 영화종합촬영소와 같이 세트장을 일정 기간 공유하며 관람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인기있는 영화 · 드라마 세트장이라고 해서 현장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논리는 건축의 가치를 공멸시키는 사회적 압박일 수 있다는 점을 나는 강조하고 싶다.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지식인 사회의 문화적 사건으로 지목되어 투어의 대상이 되어 있지 못한 작금의 정황을 보건대, 모조품일지언정 당장의 관광명소로 수익원이 된다면 건축의 가치를 무시할 수 있다는 사회적 압박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나는 우리 사회가 벌이는 '명분의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문화를 판단하는 지식인들의 생각이 늘 같을 수 있다는 생각 또한 금물이다. 더욱이 그것이 문화를 지배하는 권력화의 조짐을 보인다면 참 난감하다. 하나의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미처 짚어보지 못하고 가는 것은 없는가를 챙겨보는 것이 곧 담론의 한 표징이 아니겠는가.